

# 전남도,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 호응

민간 주도 지역 혁신상권 조성  
‘로컬상권 페스티벌 위크’ 인기  
나주 10~12일·여수 20일 개최  
“소상공인 성장 위한 정책 발굴”

전남도가 민간 주도 지역 혁신상권 조성을 목표로 ‘2024년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로컬상권 페스티벌 위크(WEEK)’가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

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해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상권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상권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4개 기업에 역량 강화 교육, 사업화 지원 외에 각 상권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로컬상권 페스티벌 위크는 오는 20일까지 보성, 강진, 나주, 여수에서 진행된다. 상권별 축제는 상권 상생과 로컬브랜드화를 목표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지역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나주에서는 ‘3917마중, 이화에 월백하고’를 주제로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전통 가옥에서의 고택 버스킹, 배꽃 작품 전시회, 로컬 프림마켓, 나주읍성 전통 인력거 로컬 트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20일에는 여수에서 ‘장성마을 상권 축제:동동마켓’이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벼룩시장, 커피 테이스팅퀴즈쇼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보성에서 열린 ‘숲 속 농부장(FOR:REST)’에서는 지역 생산자가 참여해 친환경 로컬 제품과 농식품을 소개하고, 음악공연과 마켓 등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6일 강진에서 개최된 ‘우리

들의 성장, 꼬마장’ 행사에선 청년창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마켓과 소품 만들기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이번 로컬상권 페스티벌 위크(WEEK)가 지역상권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성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 ‘영광 법성~홍농’ 2차→4차로 확포장 9년 만에 완공

한빛원전 재난시 대피로 확보  
교통여건 개선…지역경제 도움

영광 한빛원전 주변을 오가는 원전 관계자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영광 법성~홍농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서 ‘영광 법성~홍농간 국지도 개통식’이 열렸다.

개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영광군수 권한대행, 전남도의원, 영광 한빛원전 본부장, 지역민과 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

고, 기념사, 개통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법성과 홍농을 새롭게 잇는 국지도 15호선으로, 5.6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했다. 법성면 소재지를 우회해 운행시간을 8분 가량 단축하고, 총사업비 949억 원을 들여 9년 만에 완료했다.

구암천을 횡단하는 교량 1곳(152m)과 보도육교 1곳 등 회전식교차로 6곳이 설치됐고, 도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성면에서 홍농읍까지 구간은 2차로 구간에서 왕복 4차로로 개선돼 그동안 빈번했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원전 재난

시 대피로가 확보돼 지역 주민과 원전 관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

주요 관광지와도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법성포구와 같은 전통 어촌마을로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 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백수해안도로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관광객은 아름다운 서해안 낙조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영광은 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역사, 문화, 유산이 많은 곳”이라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와 법성과 홍농의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벼멸구 재해 인정에 피해조사 착수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피해율 따라 농약·대파대 등 지원

정부가 폭염 등에 따른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조사 시군 회의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되며, 아직 피해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

이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피해 농지 사진 촬영 등 자료 확보 이후 수확해야 한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한 농가는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지역 벼 재배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피해 농가는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

우 농약대(ha당 100만원), 80%이상인 경우 대파대(200만원)를,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4인 기준 183만원)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임을 감안,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해 11월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피해 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에 맞춰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남지역 벼멸구 피해는 전년(675ha)보다 29배 많은 1만9603ha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오지현 기자



**아시아 공공예술 프로젝트 시민보고회** 광주 시민들이 9일 동구 지산동 다복마을 일대에서 열린 ‘도시(樂):락 페스티벌&아시아 공공예술 프로젝트 시민보고회’에서 아나바다 마켓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유휴공간에 대한 사회 공통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낙후된 공간 활용의 예술적 대안을 찾아 다양한 문화적 시도를 펼쳐보는 광주형 문화 ODA 문화재생 프로젝트이다.

나건호 기자

##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개회…14일간 회기 돌입

80건 안건 처리…시정질문도

광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14일 간의 회기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새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48건 등 8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

다.

또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총 8명의 시의원들이 광주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14일에는 박희율·서임석·강수훈·박수기 의원이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15일에는 박희율·최지현·박필순 의원, 16일에는 강수훈·박수기 의원, 17일에는 심철의·조석호

의원이 시청 소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정 질의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케이블 TV와 공중파 TV로 생중계로 송출된다.

신수정 의장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제9대 의회 후반기 첫 시정질문이 광주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다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정책토론의 장이 되도록 성실히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 광주시, 시립수목원서 ‘하이, 푸룻마켓’ 연다

12일 사회적기업 등 40여곳 참여

광주시는 오는 12일 남구 양과동 광주시립수목원에서 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광역시활성센터와 함께 ‘하이, 푸룻마켓 in(in) 광주시립수목원’을 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하이, 푸룻마켓’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유관기관 등 40여곳이 참여하는 이날 행사는 △감정오일 테라피 △무등산 수박 탄산수 △편백 가습기 △수공예 제품 △유기농 먹거리 등 200여 종의 이एस지(ESG·환경사회지배구조) 친환경 제품을 판매한다. 또 △커피박 화분 만들기 △반려식물 테라리움 체험 △친환경 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홍

보 부스도 운영한다.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면 피크닉 매트를 증정(선착순 500명)하고, 2만원 이상 현장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로 슈링클을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친구 추가 프로모션 등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센터 기업성장팀(062-531-6667-8)으로 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아시아 전통문화 교류의 날’ 개최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의 전통문화예술 공연, 놀이체험, 전시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1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2024 아시아전통문화교류의 날’ 행사인 ‘전통으로 마음을 잇다’를 개최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2024 아시아문화주간’에 맞춰 기획된 이번 행사는 키르기스스탄 국립 마나스극단과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이 함께한다.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두 국가의 공연인 만큼 한국어 사회와 러시아어 통역이 함께 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 고려인마을의 협력으로 전통문화 전시를 구성, 결혼이주민이 통역과 코디네이터로 참여하는 등 키르기스스탄 교민과 고려 이주민이 함께 만들

어 더 의미가 있다.

오후 5시 소공연장에서 세 나라의 교류 공연 ‘전통으로 마음을 잇다’가 열린다.

키르기스스탄 국립 마나스극단의 ‘서사시’로 무대를 연다. 서사시는 키르기스스탄의 영웅인 마나스의 일대기를 다룬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서사시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이어진 무대는 카자흐스탄 고려아카데미 국립극장이 카자흐스탄의 전통민요와 고려인들에게 전해진 밀양아리랑을 노래한다.

또 지역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광주시 무형유산 예능보유자와 전문예술인의 판소리와 무용으로 꾸민다. 마지막 무대는 세 나라의 전 출연진들이 아리랑을 한목소리로 소리하면서 마음을 잇는다.

모든 공연과 체험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이나 광주문화재단 시민생활문화팀(062-670-74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